

# 몸은 꿈의 그릇... 열반에 뜻을 두어라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6)

네 비구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네 명의 비구가 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었다. 한 비구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

한 비구가 말했다.

“천하의 괴로움 가운데 음욕을 참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거야.”

다음 비구가 말했다.

“아니야, 세간에서 굶주림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을 거야.”

또 다른 비구가 말했다.

“아니, 세간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성냄을 참는 일일 것이지.”

나머지 한 비구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일 거야.”

그러자 비둘기가 말했다.

“음욕이 왕성하면 차분히 돌아보고 생각할 수가 없어.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들은 모두 이 음욕으로 인한 것이지.”

다음엔 독사가 말했다.

“성내는 마음이 일단 일어나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도 가리지 못하게 되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이번엔 사슴이 말했다.

“나는 숲에서나 들에서나 항상 마음이 두려워서 편안하지 않아. 사냥꾼과 범이며 이리 등 온갖 짐승들을 두려워하므로, 비슷한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얼른 달아나 구멍이나 언덕에 몸을 던지곤 해. 도망치느라 어미와 새끼가 서로 버리기도 하면서 간담을 두근거리게 되지. 이걸 보더라도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로운 것일 거야.”

며칠 후, 새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네 명의 비구들이 능금나무 아래서 수행하다가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한 비구가 말했다.

“밤날 온갖 초목이 꽃을 한창 피울 때 들에 나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또 한 비구가 말했다.

“집안 친척들이 좋은 날에 모여서 풍악을 울리며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재산과 보물을 많이 쌓아 놓고서 하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수레와 말과 입는 것 따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디 나가지만 한번 눈매 확 띄어서 지나다니는 이들이 눈여겨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지.”

“예쁜 아내와 첩에게 화려한 비단 옷을 사뿐히 입고 향내가 자욱한 속에서 교태를 보며 실컷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지.”



삽화 · 강병호

그때에 정진력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니 괴로움의 근본을 구명하지는 못 한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그릇이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이 없다. 나는 이 때문에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면서 뜻을 없애고 생각을 끊으며 4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 하며 열반에만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란 고요히 사라지며 형상이 없으니 근심과 걱정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네 짐승들은 이 말을 듣고 이내 열리고 풀렸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5통 비구가 바로 지금의 나이고, 그때의 네 짐승은 바로 지금의 너희 네 사람이다. 전세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들었거늘, 어째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또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이란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란 것을 설하셨다.

“옛날에 보인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이웃 나라의 네 왕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한번은 그 네 명의 왕을 초청하여 한 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마시고 먹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별하는 날에 보인왕이 물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네 왕의 대답은 지금 너희들이 한 말과 다르지 않았다. 보인왕이 그들을 위해 그 즐겁다는 일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임을 설명하자, 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다. 이때 보인왕은 바로 지금의 네 몸이요, 그때의 네 왕이 바로 너희들 네 사람이다. 이때 비구들은 이치를 깨닫고 도를 얻었다. <<범구비유경>> 제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26



## 공양의 기쁨, 인연의 기쁨

수덕사 대중공양 가던 날

2008년 부산불교 신도회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련대회를 간 곳이 공림사(公林寺)였다. 그때 주지 스님이 절 소개를 하시기를 “이곳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선(禪)을 하는 곳이어서 일반 기도처와는 다른 곳이고, 수행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공양을 왔더라도 인연을 밝히지 않아야 하며, 그냥 소리 없이 해야 합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멋있게 들렸다. 우리도 이런 소리 없는 대중공양을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을 ‘공림(公林)공양회’라 지었다. 비록 작은 성구이라도 마음으로는 공덕이 수풀처럼 우거질 수 있는 원력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은 이름이다.

2006년 여름 하안거 때는 해인사에 모일 600인분을 가져가서 직접 공양간에서 스님들과 함께 모임을 하며 공양을 올린 적도 있고, 그 밖에 통도사 송광사 등 여러 수행 처를 다녔다. 올 해엔 나들이가 좀 많아졌다. 지난번엔 운문사 대중공양을 다녀왔고, 다음달 7월 6일 논산 현륜사 군 법당 장병들

을 위하는데 이렇게 수 억 만개를 가진 큰 나무를 안고 한 바퀴 돌게 되면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음이 생각해보니 우리 너무 공짜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스스로 그만큼의 원력과 간절한 기도여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 다음 법당 참배 마치고 공양을 했다. 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해인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의 진경과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후 멀리서만 보였던 설정 스님이 법문을 하시기 위해 내려 오셨다. 살며 생각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일러 주셨다.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업(業)을 맑히는 방법으로 연불하고 참선하며, 주력을 함으로 좋은 말 하는 습관을 길러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누구에게나 격려와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표정하나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제가에서 스님들과 같은 수행은 어렵지만 5계만이라도 잘 실천한다면 절대 삼악도 없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부지런히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하라는 당부와 법문을 주셨다. 어쩌면 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번을 들어도 좋을 법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도반 모두의 얼굴에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다. 이런 모습들이 신심의 시작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 5계만 잘 실천해도...

###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보며

### 좋은 인연의 소중함 알 게 돼

### 연꽃모임 야외 법회 날

매년 6월 16일은 연꽃모임 야외 법회를 떠나는 날이다. 올해로 연꽃모임 나이가 37년째 되었다. 모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회원들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이번엔 좀 가까운 곳으로 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길을 나서면 세 곳의 절을 둘러오기를 바라더니 올해부터는 한곳이라도 천천히 편히 다녀오자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군요의 수태사로 정했다. 주지 스님은 35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스님이 살고 계시는 절은 처음이었다. 일 년에 정조기도, 초파일 백중기도, 동지기도. 정도에만 신도들이 오는 시골 절이었다.

의상대사가 장친한 유서 깊은 절 수태사(水太寺)다. 마당에는 잔디만큼이나 푸른색으로 절경이 나뭇잎이 가득 자라서 씨앗을 물고 있었다. 봄이면 이 절경이를 뜬어 효소를 담근다고 했다. 그리고 여름에는 눈도 시원하고 마당도 시원해서 그냥 두고 키운다. 맑은 하늘의 공기가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외가의 분위기 같은 편안함이 깃든 절이었다.

미리 준비해둔 각가지 나뭇잎만이며 정성 가득한 공양을 들면서 회원들의 얼굴이 모두 행복에 찌어 있었다. 공양이 끝나도록 길 떠날 생각을 않는다. 스님은 흔하디흔한 것이지만 염주 하나씩을 들려주시고 이웃 친한결 포도밭에서 어찌 처음 출하했다는 포도를 한 송이 씹 차창에서 들려며 사 주셨다. 인연은 그렇게 좋은 것이었다. 서로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좋은 것 같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의 수계법회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나뭇잎을 하게 될 때도 있다. 한 번 동참한 사람은 또 다른 회원을 데려오고, 자꾸만 밀려드는 회원들 다 받아들이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나이 탓인지 혼자서 버스 2대 3대를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다. 부득이 70명의 회원 안에서 사정이 있어 못 갈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버스 한 대만 움직이는 걸로 했다.

6월 14일 우리는 버스를 빌려 수덕사로 갔다. 마침 서울에서 오시는 해인 스님과 수덕사 정혜사에서 설정 큰스님을 친견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님들의 마중을 받으며 도착한 정혜사는 마당에서부터 감동, 감동이였다. 몇 백 년을 이 마당 가운데에서 커 오면서 너무나 많은 염주 알을 키워온 큰 보리자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백백이 너무 많은 열매가 푸른 잎과 함께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웬지 그 나무를 보면서 큰 신심이 일어 나무를 안고 돌기부터 했다. 그랬더니 하나 둘 도반들이 따라 돌기 시작했다. “왜 나무를 안고 돌고 있느냐”고 누가 물었다. 내가 “이 나무 안고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10만 독을 부르는 영험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모두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았다. 모두의 얼굴이 나와 같이 행복할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 아닐까. 백팔 염주 알을 한 알 한 알을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 조왕탱화 상세안내

- 정의: 부역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 유래: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 명호: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미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 구성: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柴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감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 필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 내용: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꽃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실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회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천연면포, 순금 99%(평균), 안료, 가금(금니)
- 규격: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051)332-0045 / 010-9216-0988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